삼성티앤티
SAMSUNG T&T

SAMSUNG T&T 소개(1)

01

삼성T&T는 삼성,대우조선해양과 울산 현대중공업의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시운전 협력업체
DSME의 핵심기술 자회사인 디섹의 품질검사업무를 주로하는 회사임..

02

현장/기술인력의 업무
조선/해양플랜트 제작부문에서 전계장파트의 협력사로 글로벌 조선/해양플랜트/오일메이져 선주사들이 발주한 국제규격의 영어로 된 도면을 사용하여 용접전기배관시운전 부분을 담당..

03

기자재 / 기술개발 연구소 운영

04

품질관리요원(QM/QC) 프레닝 센터운영

SAMSUNG T&T 소개(2)

회사주소

[대구본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77-15 광성빌딩 201호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24-10 B동 202호
[거제지사]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대표전화

전국대표: 1688-0436

서울지사:02)517-0295

거제지사:055)682-0714

근무시간

대구본사/서울지사
09:00 ~ 18:00

거제지사
08:00~ 18:00

회사홈페이지 : http://www.samsungtnt.com
http://조선소닷컴.org

입사지원E-mail : recruit@samsungtnt.com

대표이사 인사말

고객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제공

바로 삼성티앤티의 목표이자 이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티앤티 대표이사 전명희입니다.
당사는 대우조선해양(DSME)의 자회사 DESC의 협력사로서 품질관리(QM/QC)를 비롯 해양시운전 전문 대행사입니다.
또한 현장(야드) 인력을 꾸준히 관리/운영함으로써 해양대국 건설에 일조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과 이상이지만,누군가는 이미 현실로서, 경쟁사를 앞서나가고 있는 비결을 저희를 통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사연혁 및 개요

2003

대우중공업 협력사
“한국커뮤니케이션즈”로 출발

2005

거제 삼성중공업 협력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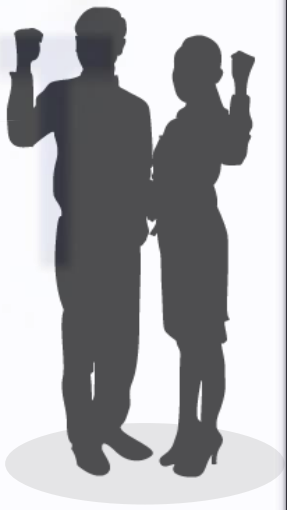
울산현대중공업 협력사

2013

-한국커뮤니케이션즈 사업부분 확대
삼성티앤티로 회사명칭변경
-본사이전
-DSME 자회사 디섹 협력사

3.조직도

대표이사
서울지사
대구본사
거제지사
기자재기술개발 연구소
관리팀
현장인력 배치/관리
QM/QC 전문인력원
CS 운영/관리팀
QM/QC 관리업무
영업팀



4.사업영역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NTD/ **품질검사**
NOV
API

조선/해양플랜트분야
품질 관리/검사

해양시운전

조선/해양플랜트
Commitioning
Field Operating

조선해양 현장 야드/기술

용접/전기/배관
인력 수급/공급

5.세부사업영역

dsec

삼성티앤티 SAMSUNG T&T

QM/QC

해양시운전

성진

주경

거제산업

현장(야드)
협력 업체

삼진전기

오케이테크

6.주요실적

2007

대우중공업1차협력업체(약300명취업)
현대중공업1차협력업체(약400명취업)
삼성중공업1차협력업체약(250명취업)
원자력발전소1차협력업체(약100명취업))

2008

대우중공업1차협력업체(약250명취업)
현대중공업1차협력업체(약150명취업)
삼성중공업1차협력업체(약300명취업)
원자력발전소1차협력업치(약100명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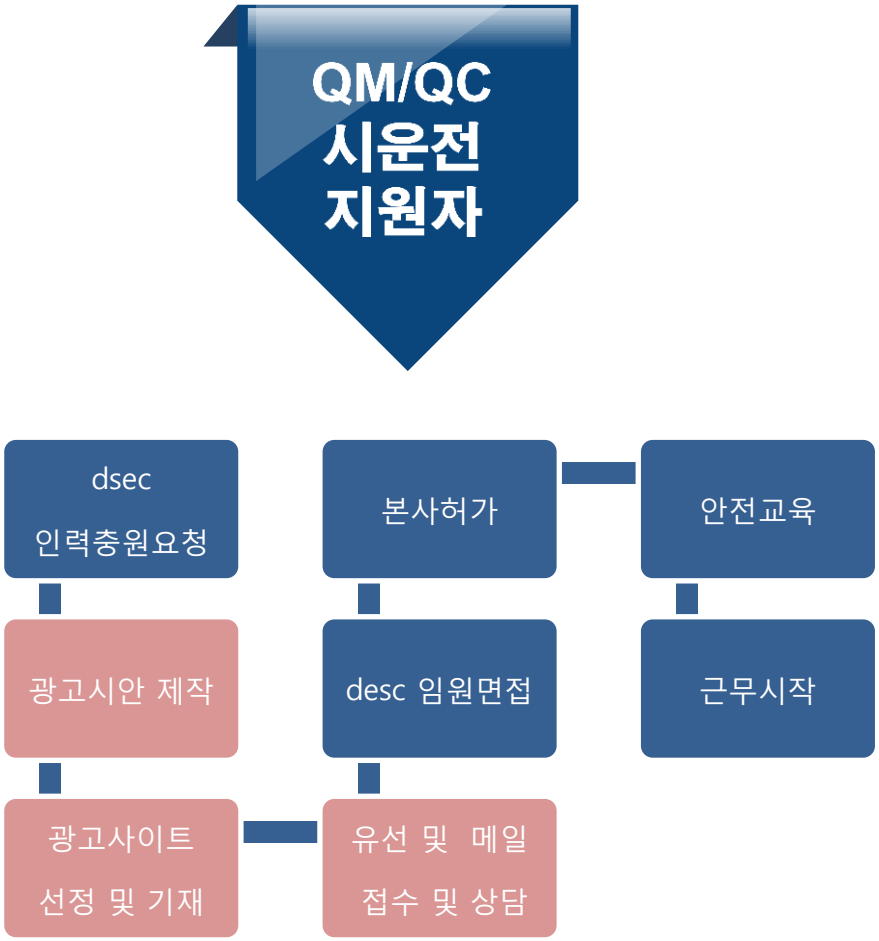
2009

대우중공업1차협력업체(약200명취업)
현대중공업1차협력업체 (약150명취업)
삼성중공업 1차협력업체 (약200명취업)
원자력발전소 1차협력업체 (약250명취업)
제철소및 반도체공장 1차협력업체(약50명취업)

2010~

대우중공업1차협력업체(약200명취업)
현대중공업1차협력업체(약300명취업)
삼성중공업1차협력업체약(250명취업)
원자력발전소1차협력업체(약150명취업.

7.채용가이드


QM/QC
시운전
지원자
dsec
인력충원요청
본사허가
안전교육
광고시안 제작
desc 임원면접
근무시작
광고사이트
선정 및 기재
유선 및 메일
접수 및 상담

8.SME 인재양성

SME인재양성

Loyalty for the Mission

SAMSUNGT&T INTERNET, INC.

고객맞춤 핵심직무아 프로세스에 대해 각 영역별 개념과 원칙의 이해 및 실무적용능력 향상을 목표로 Intensive/OJT**과정운영**

조선/해양플랜트 NEWS

현재 조선산업은 중국의 거센 추격 그리고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Dril Ship 등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산업에서 국산 기자재 비율은 20% 이하 이며, 기자재관련 업체은 기술력, Track record 및 기타 제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해양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 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테마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활성화 및 모멘텀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업이 테마클러스터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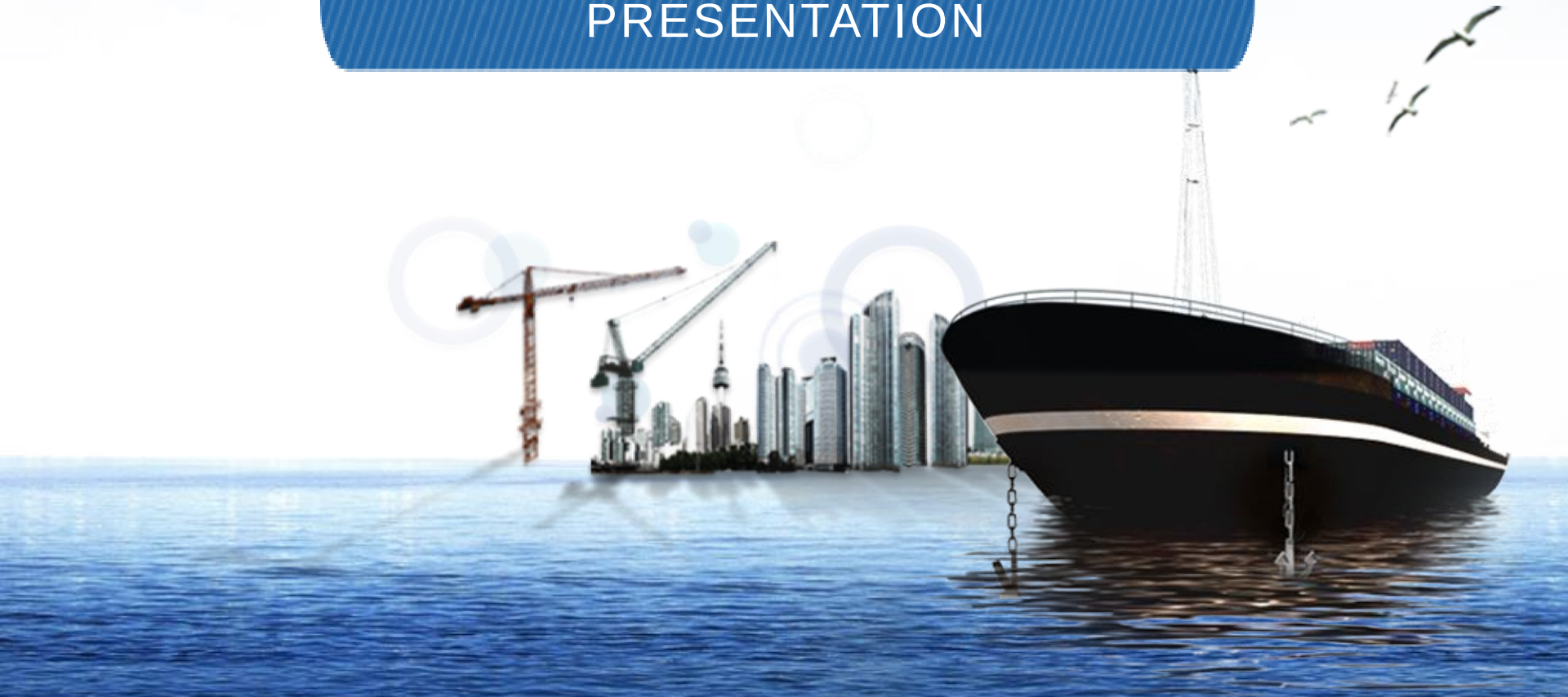
테마클러스터란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클러스터로 목표를 정하고 코디네이터(중심)기업 중심으로 뭉쳐 운영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기존 클러스터와 차별화 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구성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R&D, 비R&D사업의 패키지형태로 구성된 사업이다.

2013년 테마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되어 10월 11일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총회개최를 시작으로 진행되는『Module 기반 Oil FPSO 기자재 국산화 테마클러스터』는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와 중소기업 30개사 참여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대중소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의 구성은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5개 분야 나누어 각 분야별 대기업(삼성중공업, 삼성태크윈, 대우조선해양, 현재중공업, S&T중공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Oil FPSO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해외공동 마케팅 및 판매망 구축, 기술 및 정보교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 목적이다.

이 사업의 파급효과는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은 철강, 화학 등 기초 소재, 기계 및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클러스터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동남지역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기술과 생산의 거점으로 발전함 물론 세계 FPSO 시장(시장규모: '21년 140억불)에서 2.7조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10월 11일 kick-off하는『Module 기반 Oil FPSO 기자재 국산화 테마 클러스터』사업은 참여업체를 분야별로 Grouping하여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과 해양플랜트 국산화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ANK YOU

SAMSUNG T&T POWER PRESENTATION